한국 가톨릭 여성에게 고통과 신비체험:

황데레사와 윤율리아의 자전적 기술을 중심으로*

우혜란**

1. 서론
II. 삶의 여정: 몸에 쓰인 고통
II.1. 황데레사의 삶과 신비체험
II.2. 윤율리아의 삶과 신비체험
III. 몸 그리고 고통의 구원론적 의미
IV. 결론

I. 서론

본 논문은 필자가 연구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성 종교지도자들의 '자전적 기술'(autobiographical writing)을 바탕으로 이들의 종교적 성장과정과 종교체험 내용을 비교분석하면서 갖게 된 일련의 문제의식과 연결된다. 물론 이들 여성의 자전적 기술은 그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비/종교체험을 중심으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재)해석하고 (재)의미화 하여 하나의 일관된 자신들의 '구원의 역사'를 구성하여 자신들의 현재의 종교적 역할이나 위상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들의 신비체험 또한 기술의 과정을 거치면서 재의미화 되고 해당 종교전통의 맥락에서 재구성된 결과물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가톨릭에 한정하여 자신들의 '사적 계시'를 토대로 평신도 중심의 마리아 신심운동을 전개한 대표적인 두 여성, 황데레사와 윤율리아의 자전적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필자가 이 두 여성에게 일차적으로 주의를 기우리게 된 것은 한국 여성 종교지도자들의 자전적 기술을 수집하고 조사하면서 이들 중 대다수가 몸 혹은 육체적 고통(질병)을 하나의 중요한 매개로

---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327-A00248)

** 가톨릭대학교 종교학과 외래교수

종교적 자각 내지 신비체험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특히 이 두 여성의 경우 기술하고 있는 육체적 고통이 매우 극단적이고, 항시적이라는 점에서 거의 '자학적' 으로 보일만큼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어떤 개인적 조건 그리고 종교전통이 이 두 여성들로 하여금 '고통'에 몰두하게 했으며 결국 고통을 종교적 차원으로 승화시켰는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여기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은 필자는 여성들의 신비체험을 '고통'이라는 주제를 통해 풀어나가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신비체험의 복합적 구조를 '고통'이란 단일 요소로 환원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이 두 여성의 삶에서 그들의 육체에 가해진 정신적, 물리적 폭력의 경험을 다루고, 이어서 어떻게 이들이 이러한 폭력의 경험으로 인한 고통과 트라우마를 종교적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재)의미화 하고 있는가를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여성에게 몸 혹은 육체적 고통/금욕이 어떤 구원론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가를 보다 넓은 맥락에서 고찰하기 위해서 서양 중세 여성 신비주의자들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였다.

II. 삶의 여정: 몸에 쓰인 고통

황데레사(1925-1990년대?)와 윤율리아(1947-)는 한국 천주교교회의 성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성모신심운동의 전통에서,[1] 그러나 평신도로서 자신들의 사적계시를 근거로 독립적인 종교공동체 구축을 시도하면서 제도권(성직권)과의 지속적인 갈등과 대결을 겪은 인물들이다. 황데레사(본명: 황옥희)의 본격적인 신비체험은 1946년 9월 세례를 받은 후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상주)공동체는 일찍이 그녀에게 내려진 (대구교구장의) 금지공문(1957)으로 인해 그녀의 활동이 위축되면서 급기야 제도권으로 완전히 흡수되어 일반 수도회 - 미리내 성모성심수도회(1984-), 미리내 천주성삼 성직수도회(1991-) - 의 형태로 정립되었다. 한편 황데레사의 지도신부로 그녀를 후원하고 성모가 황데레사를 통해 방인 수도원 설립을 부탁하였다는 (고)정행만 신부가 수도회 설립을 오랜 기간 추진하면서 결국 위 두 수도회의 창립자로 명명되면서 황데레사의 존재는 위의 수도회의 공식적인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다.[2] 이와 달리

1) 한국 천주교교회에는 1950년대부터 해외로부터 유입된 '레지오 마리애,', '푸른군대', '마리아 사제운동'과 같은 성모신심단체들이 있었으며 이 두 여성 또한 이러한 단체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다.

2) 흥미로운 것은 성모가 황데레사가 아닌 정 신부에게 수도원 설립을 부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황데레사, 『데레사의 지난 일들』, 미래내 성모성심수녀회, 1988, p. 183.)

윤율리아(본명: 윤홍선)는 자신의 공동체인 (나주)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대한 2008년 광주교구장의 파문 교령에도 불구하고 이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동시에 로마교황청으로부터 직접적인 공동체 인준을 기대하고 있다. 여기서는 지면상 상주공동체와 나주공동체의 교회와의 타협 혹은 충돌의 긴 역사를 기술하는 것은 생략하고 이 두 여성의 삶 그리고 이들의 종교체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Ⅱ. 1. 황데레사의 삶과 신비체험

황데레사의 자전적 기술인 『데레사의 지난 일들』[3](1988)에 의하면 부친이 결혼 3년 만에 첩을 얻어 딴 살림을 차리면서 본가를 전혀 돌보지 않은 상황에서 모친이 홀로 어렵게 3남매를 부양하면서 끼니도 잇기 힘든 극심한 가난을 겪었으며 이를 피해 나이 18살에 11살 많은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되나 이 남자가 떠돌이 빈털터리에 술주정뱅이로 그녀에게 고문과 같은 끔직한 폭력을 행사한다.

> 나는 사흘 사이로 맞으니 살 도리가 없었다. 무섭고 떨려서 아무래도 못 살 것 같았으나 어머니의 엄하신 지도 때문에 참고 살아왔지만 너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었다... 술이 다 깰 때가지 두들겨 패니 집에 있다가는 맞아 죽겠기에 피해 나왔지만 새벽이 되면 또다시 들어가 매를 맞곤 하였다. 장부가 무서워서 하자는 대로 다 따라도 술만 먹으면 자기 정신을 잃어버렸다.(1945)[4]

> 장부는 내가 찾아왔다고 화가 나서 (수금한 돈을) 한 푼도 안 남기고 술을 다 마시고와서 (아들)안드레아 목을 베려고 ... 숙자의 아버지 이냐시오가 들어와서 어린애를 빼앗고 칼을 잡아 겨우 생명을 건졌다. ... 어머니 친구집 창고 앞에서 아이들 둘을 치마폭에 싸서 안고 밤을 세웠다. 그 매를 맞고도 살아야 구령[5]을 하고 교회법에 안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장부 술 깨면 새벽에 다시 집으로 들어갈 생각을 했다. 장부 고통을 무섭게 당할 때마다 치명복자[6]들이 고통을 받을 때 ..겁이 났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치명복자들을 묵상하고 참아 받았다. 이 고통으로 우리 한국 치명복자들을 성인품에 올려달라고 희생기

---

3) 이 책을 황데레사가 직접 저술했는가는 확실치 않다. 그녀가 원래 문맹자였고 따라서 그녀는 자신의 신비체험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냈고 그 묵시의 내용은 서기가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녀의 지도신부(정행만)가 이 저술을 권고하였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나 어휘의 선택에서 지도신부의 개입을 배제할 수 없다. (같은 책, p. 7f.)

4) 같은 책, p. 57. (밑줄은 강조하기 위해 첨부된 것임)

5) '구령(救靈)'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생활하여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뜻.

6) 순교자

구 바치고 또 가난한 우리 조국 잘 살게 해달라고 울면서 희생을 바쳤다. (1949.5.17)[7]

내가 성모님을 보니까 사람들이 가끔 찾아오곤 하는데 ... 돈 받은 것 왜 안 내놓느냐고 하며 갖은 고통을 다 주었다. 부엌이나 방에 엎어놓고 연장을 순서대고 갖다놓고 때렸다. 송곳으로 눈을 빼려 하고 몽둥이로 때리고 면도칼로 동맥을 끊으려 하고 쇠부지갱이로 등을 때려 광목 적삼이 쫙 찢어지기도 했다. (1949.7.16)[8]

(장부가) 아무리 돈 내놓으라고 고통을 주어도 돈은 남자가 벌지 여자가 무슨 돈을 버느냐, 이런 은혜는 영신적인 것이니 물질을 생각해서는 안되고 물질을 받으면 성모님께 때 묻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한결같은 대답을 하니 ... 장부는 ... 오줌이 하나 가득 담겨 있는 오강에 자기 가래침을 탁 뱉고 목에 칼을 겨눈 다음 입 안 벌리면 송곳으로 눈을 콱 찔러버린다고 입을 벌리라 해서 무서워서 입을 벌렸더니 오줌을 입에 쏟아 먹이는데 다 못 넘어가서 옷에 쏟기어 옷이 다 젖었다.(1949.9.12)[9]

주일날 성당에 가서 장부 마음 돌려 처가에 다시 가서 일하게 해달라고 기구를 하고 집에 돌아오니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장부가 문을 걸어 잠그고 돈을 내놓든지 은혜받는 일을 말든지 항복을 하라고 장작개비로 나를 두들겨 패다가 돈이 없어 돈도 못 내놓고 은혜일을 않겠다고 항복을 안하니 탄탄한 노끈으로 목을 옭아매고 조르고 가슴에 올라앉아서 고통을 주는데 너무너무 고통이 되어 눈이 툭 튀어나오는 것 같고 혀가 빠지는 것 같아 죽기 직전이 되었다. ... 숨이 안터지다가 병자성사 받고 밤중에서야 숨이 트였다. (1949.11.13)[10]

황데레사의 몸에 가해진 남편의 폭력은 당시의 가부장적 한국사회의 폭력성을 반영한다. 그러나 그녀가 이러한 폭력에 능동적으로 저항하는 대신 이를 일종의 순교자적인 태도로 받아들였다는 점은 그녀가 가부장적 질서에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말한다. 이러한 순응적인 삶의 방식은 그녀가 줄곧 지도 신부(정행만 신부)에 의지하고 교도권에 순명하면서 결국 자신이 소망하던 수도회의 설립을 보지 못하고 사망한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그녀의 이러한 순종적 삶의 방식은 자신의 어머니의 삶을 모델로 삼고 있는데, 이는 『데레사의 지난 일들』 머리말에서 이 책에 자신의 어머니(권마리아)의 삶이 삽입된 이유로 (지도 신부의 조언에 따라) 어머니의 삶이 하나의 본보기가 되어 여성들이 이러한 참는

7) 황데레사, 같은 책, pp. 197-199. (괄호속 내용은 필자가 이해를 돕기 위해 첨가한 것임)
8) 같은 책, p. 201.
9) 같은 책, p. 205.
10) 같은 책, p. 215. 이 사건 이후 그녀의 친가에서는 그녀의 목숨을 걱정하여 남편과의 이혼을 진행하게 되고 또 주교로부터 생명이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이혼이 교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회답을 받아 그녀는 후에 결국 남편과 헤어지게 된다.

덕을 통해 가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어머니의 "고통 참아받은 역사"가 바로 자신이 은혜를 받게 된 밑거름이고 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음에서도 나타난다.[11]

황데레사는 종교활동 초기에 남편으로부터 받는 폭력, 성당 다니고부터 계시와 함께 동반되는 육신의 아픔과 밥 못 먹는 고통 그리고 마귀가 성당에 나가지 못하게 주는 고통이 더해지면서 한동안 가중된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마귀 고통'이 그녀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가학적 형태의 폭력과 많은 점에서 유사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귀가 성당에 나가면 죽인다는 경고와 함께 창을 가지고 가슴을 누르고 찌르려 했다던가,[12] 마귀의 성당 다니지 말라는 유혹을 거부하니 쇠사슬로 그녀의 목을 옭아 까무러치게 했다던가,[13] 대마귀 셋이 쇠사슬에 묶여 붉은 말, 검정 말, 백말을 타고 오더니 말에서 내려 큰 칼을 목에 들이대며 성당에 못 다니도록 항복을 받고자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는 것 등이다.[14] 그러나 마귀고통은 그녀가 종교적으로 보다 성숙해지면서 점차 약화하고, 대신 자신이 경험하는 고통을 성모 그리고 예수의 고통에 동참하고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한 희생으로 이해함으로서 고통의 긍정적 의미를 깨닫게 된다.

황데레사의 신비체험 내용은 그녀가 문맹자였기에 일차적으로 그림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즉 그녀는 환시(vision)를 받으면서 이를 '자동적'으로 그림(500여 장)으로 옮겼고 그때 마다 자신도 모르는 말(묵시)이 쏟아지면 이를 옆의 서기가 기록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15] 그녀의 신비체험은 1944년 10월 그녀가 '공소'[16]를 방문하는 용기를 가지고자 성모님을 부르던 중 "하늘에서 별 하나가 중간에서 내려와 광채가 나더니 둥그렇게 되면서 광채가 모여져 가슴으로 들어왔다."[17]를 시작으로 1946년 9월 세례를 받으면서 본격화 된다.[18] 그녀는 영세 받

---

11) 같은 책, pp. 7f.

12) 같은 책, p. 53.

13) 같은 책, p. 65.

14) 같은 책, p. 107.

15) 같은 책, p. 300. 그녀는 한 사제에게 자신이 공중에서 다양한 환시(예를 들어, 예수나 성인들의 행적)를 보고 동시에 그들의 고통을 그대로 받으며, "공중에 보여도 연필만 들면 제대로 팔이 돌아가는 대로 그립니다."라고 보고하고 있다. (같은 책, p. 297.)

16) '공소'(公所)는 본당(本堂)보다 작은 교회 단위로 신부가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미사가 집전되지 못하고 대신 정기적인 신부의 방문(보통 일 년에 두 번 봄과 가을)을 통해서만 성사(聖事)가 집행된다.

17) 황데레사, 같은 책, p. 49.

18) 황데레사는 천주교 집안 출신도 아니고 또 학교에는 가보지도 못한 문맹자로 교리를 모른

고 3일 만에 성삼(聖三)[19]의 발현과 성모의 발현을 경험하고 천당, 연옥, 지옥을 보았다고 한다. 1948년 11월에는 성모로부터 평화를 위한 '묵주기도 간주경'을 받았다고 하며, 1949년 2월 성모는 "머리 위에 발등 위에 임박하게 불덩이가 떨어지려 하니" 이 묵주간주경을 속히 전파해야 이를 막을 수 있으며, 경문 전파 6만 명이 되면 큰 영광을 주신다며 이 경문을 넣어 묵주의 기도 5단을 바칠 때마다 공산주의자 다섯 명을 회개 시켜 주시고 또한 이 기도를 올리는 자에게는 임종 시 '상등통회'(上等痛悔)[20]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한다.[21] 이어서 1950년 4월에도 성모가 나타나 이북에서 공산군이 쳐내려오니 이 위험을 막으려면 빨리 이 경문을 전파해야한다고 재촉하셨다고 한다.[22]

그러나 황데레사를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보속고통으로 그 시작은 1948년 11월 예수의 십자가길 '14처 고통'[23]에 대한 것이다. 그녀는 1처마다 3시간씩 3일 동안 탈혼 상태에서 누워서 꼼짝 못하고 예수가 당하신 고통을 '그대로 대신' 받았다고 하며,[24] 이후 그녀는 지속적으로 십자가고통을 받게 된다.

> 3일 동안 14처 고통을 받고 난 다음날이 주일이어서 성당에 가니 미사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신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오상[25]의 붉은 핏줄을 내 몸에 보내시는데 너무나

다는 이유로 영세를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1946년 9월 받은 세례도 예외적으로(寬免) 천주경만 외우고 받은 것이다. (같은 책, pp. 65-69.)

19) 성부, 성자, 성신.

20) '상등통회'는 '완전한 참회'라고도 하는데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음을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즉시 하느님과의 친교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 (『가톨릭백과사전』)

21) 황데레사, 같은 책, p. 131. 여기서 '불덩이"는 6.25 전쟁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 사적계시는 기도를 수량적으로 계산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여 교회가 가르치는 신앙의 진리에 위배된다며 제도권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다. (최경선, 「올바른 성모신심」, http://campus.udayton.edu/mary/mariandevotion.html)

22) 같은 책, p. 239. 이 밖에도 황데레사가 받은 계시의 상당 부분이 반공산주의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한국의 성모신심운동에 '붉은 군대' 즉 공산주의 무신론자에 대적한다는 모토 아래 설립된 '푸른 군대'(Blue Army)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고 그녀 또한 이 단체와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언급할 수 있다.

23) 예수의 십자가길 '14처 고통'이란 (1)예수님 사형선고를 받으심, (2)예수님 십자가 지심, (3)예수님 첫 번째 넘어지심, (4)성모님과 만나심, (5)키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짐, (6)베로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 (7)예수님 두 번째 넘어지심, (8)예루살렘 여인들이 주님을 애도함, (9)예수님 세 번째 넘어지심, (10)예수님 옷 벗김을 당하심, (11)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심, (12)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 (13)예수님의 성시(聖屍)를 십자가에서 내림, (14)예수님 무덤에 묻히심을 말한다.

24) 황데레사, 같은 책, p. 111.

25) '오상'(五傷)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두 손바닥과 두 발등 그리고 창으로 찔린 옆구

아팠다. 붉은 햇살 같은 힘있는 붉은 줄이 몸으로 싹 들어왔다. 집에 와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타났던 그대로 계속 보이면서 붉은 핏줄기를 힘있게 싹 보내니 손바닥 발바닥이 화끈하면서 뚫어지는 것 같았다. 십자가 고통이 처음 시작되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오상 고통을 과거에 다 드러내셨지만 십자가상에서 주리 틀리신 고통은 드러내지 않으셨는데 마지막으로 드러낸다고 하셨다. 주리가 틀리는 심한 고통을 십자가 형상으로 세 시간 받는데 너무 아팠다. 예수님께서 조국을 구하기 위해 십자가 고통을 희생으로 받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외교인(이교도) 귀화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박히는 희생 고통을 받으라 하셔서 나는 그 뜻으로 세 시간 받고 일어나니 ... (1948.11.1)[26]

1949년 봄 사순절에 예수님 수난하신 고통을 받는데 금요일마다 성삼산을 오르며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을 그대로 받았다. ... 세 번이나 넘어지며 성삼산에 오른 다음 예수님 십가에 못박히시는 고통을 대신 받는데 ... 십자가 그 아픔은 죽는 것 같이 아팠다. 앞으로 서른세 번을 십자가 고통을 받는데 세계 평화, 교회평화, 죄인 회개, 외교인 귀화, 성직자·수도자 성화(참회)를 위해서 받으라고 하셨다. 한국 치명복자들이 성인품에 오르도록 희생하고 한국을 위해서도 의생 바치라고 하셨다. (1949.4.15)[27]

한편 황데레사는 예수와 성모의 고통을 동시에 경험하는 '예수성심과 성모성심의 결합고통'을 받으면서 고통의 강도를 높여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성모님이 옆에서 보시고 마음이 아파 그렇게 찢어지듯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셨는지 내 가슴이 답답해지고 아팠다. 나는 (성삼산에서) 내려오면서 성모님께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군드러지신 그 당시 받은 고통을 대신 받았다. ... 십자가 고통을 받은 날 저녁 서문동 성당 식간방에서 탈혼 중에 고통을 받는데 성모님이 나타나서 무궁화 성심에 칼이 꽂혀 피가 흐르는 것을 보여주고 불타는 성심 불덩이를 내가 대신하여 세상 죄인들 위해서 받으라고 내 가슴에 확 안겨주셨다. 나는 그때부터 가슴이 뜨겁고 답답한 성심 고통을 받기 시작했다. ... 예수님 십자가에 못박히실 때 성모님이 당하신 고통이라고 생각했다. (1949.4.15)[28]

무궁화 성모성심에 칼이 꽂히여 불이 타고 피가 흐르고 예수성심이 벌겋게 달아서 천주님의 의노가 터지기 직전으로 보였다. 심한 고통을 받는 동안 지구덩이 안에서 벌겋게 달은 불화살이 눈비처럼 쏟아져 내리는데 ... 성모성심 고통을 쇠창으로 내 마음에 찔러넣어 고통 중에 심장이 찔려 숨이 넘어가는 것같이 심한 고통이었다. (1965.1.29)[29]

이 세상 죄악이 너무 많아 예수성심 성모성심을 찔러주는 화살고통을 대신 받으라 해서

리를 말한다.

26) 황데레사, 같은 책, pp. 113, 115.

27) 같은 책, pp. 135, 137.

28) 같은 책, pp. 139-141.

29) 같은 책, p. 418.

받는데 예수성심에 가득 박혔던 화살과 성모성심에 가득 박혔던 화살들이 내려와서 .. 데레사 가슴에 대신 콱콱 박히니 너무 아파서 숨이 멎도록 심한 고통을 받았다. 큰 창이 들어와 박힐 때는 지극한 고통으로 얼굴빛이 자색이 되고 숨이 끊기더라고 했다. (1987.1.29)[30]

무엇보다 황데레사가 성모의 고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식의 고통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성모의 고통에서 자신의 '자녀고통'을 재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종교적 소명으로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식(들)과의 이별이나 자식의 죽음은 왜 동정녀(처녀)나 수녀가 아닌 자신과 같이 '천하고 결혼한 죄인'이 고통을 위해 선택받았는가를 다시금 묻게 한다.[31] 이에 대한 지도 신부의 설명은 고통을 충분히 겪은 사람만이 신의 도구로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으며 또한 자녀고통을 통해 성모의 고통에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그녀는 과거와 현재의 고통이 의미 있는 고통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아이들을 고아원에 보내놓고 너무 고통이 심해서 지도신부님을 찾아가 천주께서 하신다면 구교우도 많고 열심한 동정녀도 있고 천신같은 수녀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저같이 천하고 혼배한 사람에서 하시느냐고 울면서 말씀을 드리니 정 신부님께서 동정녀나 수녀한테 그만큼 큰 고통을 준다면 못 받아내기 때문일 것이라 하시며 이 큰 고통과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고통이고 성모성심 고통을 받는 자녀 고통이니 잘 참으라고 하셨다. 자녀 고통을 당함으로서 성모성심의 고통을 더 알고 그 고통을 위로하여 참아서 세상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 바치라는 희생으로 생각하고 잘 바치라고 하셨다. 나에게는 마음 고통이 잠시도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다. (1950년 2월)[32]

셋째아이는 ... 매일 산으로 희생기구하러 다니느라 항상 떼어놓고 다니고 젖도 제대로 못 먹이고 배를 곯렸다. .... (정 신부님가) 대구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성소길로 대구에 가는데 ... 어린애를 떼어놓고 ... 다녀오니 그 사이 어린 베드로가 병이 나 있었다. .. "엄마 가지 마" 하는 것을 또 데어놓고 성당에 갔다. 성당에 가니 성모님께서 납 면류관을 주시며 "앞으로 고통이 많을 것이다. 이 면류관이 빛이 나도록 눈물로 씻어라" 하셨다. .. 이튿날 금요일 오후 세시에 베드로가 혀를 깨물고 죽는데 숟가락을 받쳐주어도 얼마나 힘있게 깨무는지 너무 너무 가슴이 아팠다.
나는 "십자가에 못박힐 때 바라다보신 성모님의 고통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참다가 슬픈 눈물이 쏟아졌다. 성모님께서 불타는 성심 덩어리를 내게 안겨주신 후 가

30) 같은 책, p. 502.
31) 같은 책, pp. 173.
32) 같은 책, p. 237.

> 슴이 뜨겁고 답답한 고통도 있지만 자녀들을 통해 주는 고통이 더 컷다. 금요일 오후 세시에, 내가 받았던 주리 틀리는 십자가 고통과 같이 어린 베드로가 주리를 틀고 혀를 깨물고 죽는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 십자가에 못박히실 때 성모님이 그 옆에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팠을까하며 애통해했다. (1952.7.4)[33]

황데레사는 셋째 아들(베드로)의 죽음 이후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고, 또 갖가지 사고와 질병 - 심장병, 눈병, 허리디스크, 교통사고로 인한 목뼈 부상, 다리골절, 온몸이 굳어짐, 저혈압, 피부화농, 당뇨, 교통사고로 갈비뼈 골절과 횡격막 손상 등 - 이 겹치면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면서 오랜 기간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여러 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등 말년 까지 그녀는 끈질기게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34] 그녀는 '정신 고통'과 '육체 고통'을 언급하고 있는데 전자에는 '자녀 고통'과 교회의 금지공문으로 야기된 고통이 속하고,[35] 후자에는 예수, 성모, 성인, 순교자 등의 대한 환시를 보고 이들의 고통을 받는 것, 마귀가 주는 고통, 방문객의 '육신병'을 대신 받아주면서 생기는 고통, 그리고 병고,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이 속한다. 그러나 그녀에게 무의미한 고통은 없으며 그녀는 자신이 겪는 일제 고통을 인류, 한민족, 한국 천주교회, 사제 집단, 이교도 등의 구원을 위한 희생 혹은 대속으로 이해하였다.[36]

한편 아래의 고백은 고통은 그녀에게 피하고 싶은 두려운 대상이나 동시에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절대적인 것으로 이를 놓을 수 없는 그녀의 절박함이 표현되고 있다.

> 세계 평화와 교회 평화를 위해서 외교인 귀화를 위해서 기구 많이 하라고 해서 성모님 뜻을 따라 희생기구를 많이 바쳤다. 장부한테 두들겨 맞고 가난한 살림을 꾸려가느라 고통을 받았고 (셋째 아들)베드로 죽는 고통, ... 자녀 고통, 그 고통이 좀 수그러지니 또 육신 병으로 한없는 고통 속에서 희생을 바치는데 이렇게 고통이 심해도 어쩌다 고통이 그치면 성모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싶어서 고통이 계속되어야 안심했다.
> 고통이 없는 시간에는 한 시간도 이 세상에서 살기가 싫고 .. "예수님 십자가에 못박히신 구속사업을 생각하며 고통받고 죽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하고 희생을 바치는 기구를 드릴 뿐이었다. (1954.3)[37]

---

33) 같은 책, pp. 273f.

34) 같은 책, pp. 437-445, 457-459. 469-471, 543-547.

35) 금지공문이 내리면서 황데레사는 지도 신부를 찾을 수 없고 무엇보다 신자들로부터 고립되면서 커다란 '정신 고통'을 겪게 된다. (같은 책, p. 420.)

36) 같은 책, p. 288.

37) 같은 책, p. 317.

Ⅱ. 2. 윤율리아의 삶과 신비체험

윤율리아는 자신의 삶을 두 권의 책, 『주님께서 예비하신 삶』(?년도미상)[38], 『님 향한 사랑의 길』(2003)에서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각각 세례 이전 그리고 세례 이후의 삶을 담고 있다. 그녀의 폭력에 대한 경험은 어린 시절로부터 시작된다. 지식인(한문선생)이였던 아버지가 6.25 전쟁 혼란기에 무고하게 총살당하고 할아버지마저 반란군에게 총살당하고 여동생도 병으로 죽자 그녀와 어머니는 빈털터리로 외가에 의지하게 되는데 모친이 장사하러 집을 비우는 기간이 많으면서 그녀는 7살의 어린 나이부터 외갓집의 온갖 궂은 일을 하면서도 갖은 학대를 받게 되며 특히 외숙은 어린 그녀에게 한 쪽 귀의 청력을 잃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심한 폭력을 행사한다. 그녀는 15살에 중학교 진학을 반대하는 외숙에 의해 공장에 취직하나 곧 그만두고 배우고 싶은 열망에서 어머니와 함께 외가를 떠나고 이후 중학교(고등공민학교)를 마치게 되나 결국 외가 고향으로 다시 내려오게 된다. 그녀는 사춘기 이후 보다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노출되는데, 즉 성적인 육체적/언어적 폭력, (미용실)고용주에 의한 노동력 착취와 구타, 동업자가 사주한 집단폭행 등이 그것이다. 특히 그녀는 자신의 주위에 치근덕거리는 남성들이 많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남성들의 성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 (4-H 클럽)중앙 경진 대회에 다녀온 뒤로 나와 사귀기를 원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혀 알지도못하는 사람들까지 서로 서로 뒤질세라 "윤 양과 내가 사귀고 있으니 넘보지 말라", "윤 양과 나는 결혼할 사이다", "윤 양과 나는 동거 생활을 6개월이나 했다", "윤양이 나의 아이를 임신한지 3개월이나 되었다." 는 등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헛소문을 퍼트려 놓고 각자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혈안들이 되어 나에게 접근을 해 오면 나는 그들의 의사를 완강히 거절했기에 그로부터 큰 시련이 닥쳐왔다.
> 그 당시 많은 여자들이 그런 헛소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문을 낸 사람에게 시집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내 주위에서도 몇몇 사람이 있었다. 나는 그러한 헛소문에 의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싫어도 결혼해야 되는 비극을 막고 또한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자기들 마음에 들면 연약한 여자들을 일방적으로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파렴치한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타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나의 결심을 굽히지 않자 ... (그들은)나를 필사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다.[39]

주인언니가 "B 다방에서 전화가 와 너를 급히 찾으니 빨리 좀 가봐라" 하였다. B다방에

---

38) 이 책은 오랫동안 절판으로 그 내용은 현재 나주 마리아의 방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39) http://www.najumary.or.kr/najumary/julia/julia027.htm

도착하니 평소에 알고 지내던 언니가 방에서 기다린다고 하여 나는 ...(다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무도 없었다. 내가 그 언니 어디 계시느냐고 묻기 위해 나오려고 하는 순간 누군가가 내 팔을 억세게 잡아채 방바닥에 눕히고 내 위로 올라타는 것이 아닌가. 그는 덩치가 얼마나 크던지 레스링 선수 김일씨를 연상케 하는 그런 큰 사람이었다.
내가 깜짝 놀라 빠져 나오기 위해 몸부림치자 그는 내 두 어깨를 꼭 잡아 꼼짝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기에 나는 그의 입술을 사정없이 물어뜯었다. 그의 위아래 입술에서 선혈이 낭자하게 흘러내리자 그도 놀라 자신의 입술에서 흐르는 피를 닦기 위해 내 어깨를 잡고 있던 두 손을 놓았다.
방에서 뛰쳐나왔더니 방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 일들은 바로 얌전하다고 소문난 나를 겁탈하여 웃음거리가 되어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작당하여 그곳에서 가장 힘이 세고 덩치가 큰 폭력배를 대기시켜 놓은 것이다.[40]

위의 사건들은 60-70년대 한국사회의 남성중심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그녀 스스로 자신이 남자에 대한 결벽증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 또한 이해 가능하다.[41] 윤율리아는 1971년 4월 24세의 나이에 나주 고향에서 결혼을 하는데 상대는 같은 4-H 클럽 회원으로 오랫동안 사귀었던 이해심이 깊은 남성으로 공무원이며 7남매의 장남이었다. 그녀가 그를 선택한 주요 이유는 그녀가 홀어머니 아래서 혼자 외롭게 지내면서 대가족 그리고 무엇보다 일찍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하여 시아버지가 있는 집안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녀는 도박을 좋아하고 무능한 남편을 대신하여 시댁을 경제적으로 책임지기 위하여 육아와 함께 힘든 노동을 하나 시어머니는 이를 당연히 여기고 그녀를 냉대하기 까지 한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에게 육체적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으나 한 때 여러 여자와 교제함으로서 그녀에게 심한 심적인 고통을 주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그녀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방법으로 전형적인 남성중심적 사고를 보여주며 그녀는 자신의 이러한 방법을 후에 부부불화를 겪고 있는 여성신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기도 한다.

그이가 아무리 서운하게 하여도 그이의 마음을 더욱 기쁘게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
'어떻게 하면 남편이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될 수 있을까? 휴식처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낮에는 현모양처, 요조숙녀 밤에는 요부가 되어 보자'
이제 새로운 각오로 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때로는 조강지처가 되어 남편을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첩이 되어 아양도 떨며 남편을 기다리고, 어떤 때는 숨겨 놓은 여자, 과부, 처녀, 애인 등등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추어 화장도 다르게 하고

40) http://www.najumary.or.kr/najumary/julia/julia031.htm
41) http://www.najumary.or.kr/najumary/julia/julia020.htm

남편을 기다리기도 했다. 술집 여자로 생각할 때는 술상도 차려 놓고, 화장도 짙게 하고, 서비스도 잘해 주어 남편의 마음을 즐겁게 해 주려고 노력했으며, 반찬 만드는 것도 이렇게도 해보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해보아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내 사랑을 총 동원하여 모든 것을 연구하여 노력해 오면서, 심지어 술도 안담아 본 술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42]

윤율리아는 결혼 생활 중 결국 병을 얻게 되고 우연히 성당에 나가면서 최초의 신비체험을 경험하게 되는데 앞에서 다룬 황데레사의 그것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1973년 우리 부부는 누구의 권유도 없이 성당에 나갔다.
나의 몸은 고통스러웠지만 성당에 다니는 일이 너무 즐거웠다.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느님 생각으로 가득 차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교리를 받았으며 성체를 영할 수는 없었지만 하루도 거르지 않고 미사에 참례했다.

그 해 어느 날 나는 비몽사몽간에 이런 일들을 보게 되었다. 여러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황금 덩어리처럼 된 어떤 물체가 빛을 발하여 그곳으로 오니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가고 나도 도망치기 시작했다. 계속 도망쳐도 소용없이 나를 따라 오기에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하여 도망갔지만 벼랑 끝에 서게 되자 나는 진퇴양난에 빠져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가만히 서 있었는데 황금색으로 빛나는 노란 물체는 내 가슴속으로 쑥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
"너의 그 인내심과 착함을 보고 나의 유산 즉 나의 전 재산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는 다정하면서도 위엄이 있는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나 앉으니...[43]

한편 그녀의 육체적 고통은 병원에서 세 번째 아이의 (강제)유산을 겪으면서 본격화되며 이 경험은 그녀의 생에서 커다란 트라우마로 자리 잡게 된다.

"아이가 2주전에 죽었습니다. 죽은 아이는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하는 원장의 소리에 나는 큰 소리로 외쳤다. "싫어요, 아이는 죽지 않았어요!" 했더니 나의 아랫배를 가리키면서 "당신 자궁이 지금 썩어 간다는 것을 왜 몰라요?" 하면서 화를 냈다. ...나는 울면서 절대로 아이는 죽지 않았으니 수술하지 않겠다고 하자 강제로 나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양 손발을 묶는 것이 아닌가, 싫다고 몸부림하는 나를 꽁꽁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한 다음 왼쪽 팔목에 마취제를 놓는데 마취가 되지 않으니 또 오른쪽 어깨에 놓았지만 그래도 안 되니 허벅지에 놓았다. 설사 아이가 죽었다고 해도 4개월 된 아이는 유도분만 해야 되는데도 원장은 마취도 안 된 상태에서 수술하기 시작했고 ... 마취가 되지 않은 채 수술했기에 나는 모든 것을 보았고, 들었고,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쳤다.

---

42) http://www.najumary.or.kr/najumary/julia/julia039.htm
43) http://www.najumary.or.kr/najumary/julia/julia047.htm

나는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짓을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살인이나 다름없는 행위가 수술이라는 미명하에 행해져 죄 없는 귀한 생명이 죽어 가다니...' 하면서 죄 없이 죽어 간 아이를 생각하며 한없이 울었다.

수술이 끝나자마자 나는 쉼 없이 계속해서 진통을 겪었다.
그래도 병원에서는 나를 1시간이 넘도록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 ..진통제로 겨우 숨을 쉬게 한 다음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다.
병원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피가 펑펑 쏟아져 나오는데 ...출혈은 계속되었는데 일주일쯤 후에는 검붉은 색으로 변하기 시작하여 ... 병원에 가니 의사는 아무 말도 없이 수술대에 올려놓고서 또 다시 수술하기 시작했다.
나의 몸 상태는 정상이 아니었으므로 겨울이 아닌데도 춥고 떨렸으며 몸이 너무 아파 .. 병원에 다녀온 뒤로 나의 병간호를 하기 위해 거의 잠을 자지 못하던 남편은 ... 자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서 깊이 잠들어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온몸이 돌처럼 굳어져 얼음장처럼 싸늘한 아내의 눈을 떨리는 손으로 뒤집어본 남편은 내 눈의 검은자는 없어지고 흰자위만 보이자 아연실색하여 정신을 못 차리다가.. 병원을 다 돌아다니며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 주는 곳이 하나도 없었다. 부인은 죽어 있는데도 병원을 찾지 못한 남편은 안절부절못하다가 그때에야 대학 병원 응급실이 생각이 나서 .차에 태워 응급실로 향했다.
어떤 곳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내가 여러 사람 대열에 끼어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하늘에서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왜 네가 여기 왔느냐. 네가 해야 될 일들이 많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어서 돌아가거라." 하는 음성이 들리자 ...나에게 말한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내가 가만히 있자 누군가가 "너에게 말하지 않느냐?" 라고 내 등을 치는 것이 아닌가. 그때 나는 눈을 뜨게 된 것이다.[44]

위의 기술을 보면 윤율리아는 의료진에 의한 낙태시술이 오진에 의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행해진 낙태(살인)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그녀를 거의 죽음으로 몰고 간 그녀의 몸과 태아에게 행해진 (의료)폭력은 이후 그녀가 자살을 시도할 만큼 심각한 육체적 와해와 고통을 남긴다.

그때 나의 온몸은 굳어지기 시작하여 남편과 어머니가 교대로 맛사지 해야 했는데 나의 몸이 바닥에 맞닿는 곳은 모두가 다 굳어 버리기 때문에 이리저리 돌려서 주물러 주어야 했다. 병원에 가기조차 힘이 들어 집에서 매일 주사를 맞아도 고통은 도저히 그치지 않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다.
나는 그 동안 시집와서 질병으로 시달리며 받아 왔던 서러움이 복받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이런 나에게 남편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걸림돌같이 생각들을 하고 있음에 내

44) http://www.najumary.or.kr/najumary/julia/julia049.htm;
http://www.najumary.or.kr/najumary/julia/julia050.htm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자신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졌다.
'그래 없어져 주자. 모두가 나 하나 없어지므로 인하여 화평해질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을 못 하겠는가' ... 자, 두려움 없이 가자. 사랑하기에 떠나자.' 나는 서서히 물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45]

한편 그녀가 경험한 (강제)낙태는 그녀에게 깊은 영혼의 상처와 죄의식을 남겼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그녀가 후에 '낙태보속'을 강조하면서 그 고통을 정기적으로 재현함으로서 드러난다. 물론 황데레사도 그녀의 자전적 기술에서 성모의 지시에 의해서 '낙태보속'을 행하였음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일부)성직자들의 성적문란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이를 대속하는 행위였으며, 그 고통의 내용도 다른 보속고통과 크게 차별되지 않는다.[46] 이에 반해 윤율리아는 자신의 공동체에서 '낙태보속'을 정기적으로 행하고 또 이때 그녀의 배가 불러오고 진통 그리고 출산의 고통도 경험한다는 점에서 '낙태'를 인간의 커다란 죄악(살인)으로 이슈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47] 윤율리아는 앞에서 언급한 강제 낙태 이후에 또 한 번 길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함으로 3개월 된 태아를 심한 출혈과 함께 유산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48]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녀가 임신, 유산, 출산, 수술 등을 경험하면서 항시 다량의 출혈을 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그녀가 후에 행하게 되는 많은 기적에서 피를 흘리는 행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아이를 가진지 9개월째 되었는데 진통이 왔다. 돈이 없어 병원에는 갈 형편이 못 되어 한약을 달여 먹으려고만 하면 진통이 멎기를 계속했다. 이렇게 진통이 계속되기를 1개월 반이나 지났다... 이렇게 1개월쯤 고통을 겪다가 광주에 있는 산부인과를 갔더니 "큰일 나기 전에 어서 유도분만을 하여 아기를 낳도록 합시다." 하는 병원장의 말에 ... 나는 시어머님께 허락을 받아야 ... 시어머님의 격분하신 말씀이 내 귀를 때렸다. "애기들은 누구나 시와 때를 맞추어 나오는 것인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어림없

45) http://www.najumary.or.kr/najumary/julia/julia051.htm

46) "열심한 성직자도 있지만 그 반면에는 과음을 하고 육정을 지나치게 쓰고 정덕(貞德)에 떨어져 산아제한까지 하고 있으니 성모님이 .. 그런 성직자들을 위해서 대신 기워 갚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부족한 고통이나마 그 뜻으로 바치겠다고 마음 먹고 허리 아프고 배 기고 못 먹는 아픈 고통을 성직자들 정덕 잘 지키도록 참고 대신 보속하기 위해 감사하게 바치는데..", "사순절에는 고통이 최고로 심하였는데 이번에도 어떤 성직자 한 분이 일본 바닷가에서 어린애를 유산으로 여덟 달 만에 낳게 하여 어떤 신부와 여자가 살아 있는 어린애를 바닷가에 묻는 것을 보여주셨다." 황데레사, 같은 책, p. 398.

47) 윤율리아, 『님 향한 사랑의 길』, Mary's Touch by Mail, 2003, pp. 157-160.

48) http://www.najumary.or.kr/najumary/julia/julia053.htm

는 소리하지 말고 빨리 내려가서 애기가 저절로 나오기를 기다려라" ... 계속 고통을 겪으면서 1주일을 기다려도 아이는 소식이 없고 2주일을 기다려도 아이가 나오지 않자 ... 1977년 나는 집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온몸을 꼼짝할 수가 없었다... 출혈을 너무 많이 하여 어머니께서 손으로 훔쳐 담은 피가 얼마나 많았던지 요강으로 하나, 세숫대야로 거의 하나였다고 하신다. 그러나 나는 수혈은커녕, 링거 주사 한 병도 맞아 보지 못했다.
그 후 나는 6개월이 지나서도 다른 방에서 선풍기를 켜기만 하여도 숨이 차오고 멎는듯하여 헐떡거리게 되었다. 너무 큰 고통 속에 힘겹게 아이를 낳고 보니 아이를 낳으면 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조그만 희망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1979년, 세 번째 아이를 낳으면서 출혈을 너무 많이 했기에 네 번째 아이 낳기가 두려워지기도 했다...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낳은 아기이니까 "몸조리만 잘하면 병이 나을 수도 있다." 고 하시면서 친정어머니께서 극진히 간호해 주셨다. 그때 시어머님은 나에게 쌀 팔아 달라고 광주에서 영암 군서까지 내려오셨다. ...아기 낳은 지 3주도 채 못 되어 쌀을 팔아 달라고 오셨으니 아직 몸도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의 내가 시골 정미소에 들렀더니 쌀이 없어 다른 곳 몇 군데를 왔다 갔다 걸어 다니며 쌀 한 가마니를 팔아 드리고 나니 출혈이 시작되었다. 한 십리쯤이나 걸었을까? 출혈이 문제가 아니라 온 다리가 퉁퉁 붓고 발바닥은 너무 뜨거워서 발을 동동 구르며 한 달가량을 밤낮으로 잠을 자지 못하면서 많이 울었다.[49]

이러한 육체적 고통으로 점철된 어려운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그녀의 몸은 점점 허약해지고 다시 중병을 앓게 되는 과정에서 그녀는 수술 중 또 한 번 중대한 의료사고 - 수술 후 거즈를 집어넣고 봉합 -의 희생자가 되고 그 심각한 후유증 뒤에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다.

첫날 병원을 찾았을 때 거즈가 터져 나온 자리에 소독만 하고 상처 난 곳에 새 거즈를 반창고로 붙여 주었는데도 계속해서 피고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내가 살아보기 위하여 매일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서 버스로 병원에 다녀야 하는 것이 죽기보다도 어려운 일인 것 같았다. 도움 없는 육신의 처참한 고통 속에서도 죽지 못해서 몸부림치며 살아보려 발버둥치는 나의 삶은 삶이 아니라 바로 죽음 그 자체인 것 같았다. 죽으면 아무것도 모를 텐데… 수술 후 출혈까지 계속되어 나의 고통은 더 가중되었다.

의사들은 암이라는 이야기를 차마 하지 못하고 만성이 되어 항문까지 퍼져 버린 암을 가족에게 보여 간접적으로 알리기 위해 항문을 벌려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죽음이 서서히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와 남편과 자식들 때문에라도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고통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내 머리에 떠올랐고 이제

49) http://www.najumary.or.kr/najumary/julia/julia055.htm; http://www.najumary.or.kr/najumary/julia/julia056.htm

그 모든 노력들도 죽음이라는 그늘 속으로 묻혀서 사라져야 한다는 현실 앞에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다.[50]

죽음을 앞두고 깊은 절망에 빠진 윤율리아는 자신으로 인해 가족들이 계속 고통 받는 것을 막고자 주위사람들에게 유서를 쓰고 자살을 실행하려고 하는 순간 남편이 성당에 갈 것을 재촉하고 이로서 그녀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신비체험을 경험하게 된다.

남편은 빨리 성당에 가자고 서둘렀다. 나는 혹시라도 남편이 눈치챌까봐 모든 것(유서와 청산가리)을 숨겨둔 채 성당을 찾아 신부님을 만나게 되었다.
나는 고통의 일부분만을 신부님께 말씀드리고 나서 "신부님, 하느님이 계시고 신이 계신다면 너무 가혹하십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쓴잔을 마셔야만 한단 말입니까?"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지금 몸으로 사랑 받고 계시네요. 나도 그런 사랑을 받아 보지 못했어요. 그대로 믿으십시오." 하는 신부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나는 그 말씀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였다. '아! 그렇구나. 내가 사랑 받고 있었구나. 그것도 모르고 나는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으니...'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나의 온몸은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1980년 성당에 나간 지 3일째 되던 날, 그 날도 나는 여전히 옷장 위에 모셔 놓은 예수님상, 성모님 상 앞에서 기도하다가 잠깐 누워 있었는데 "성경을 가까이 하라, 성경은 바로 살아 있는 나의 말이니라." 하는 음성이 들려 왔다. 나는 너무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성경책을 펼쳐 들었다. 루가복음 8장 40절-56절의 말씀「예수의 옷에 손을 댄 여자, 살아난 야이로의 딸」이었다.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서 친히 나에게 해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즉시 "아멘"으로 응답하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내가 가장 고통을 겪어 왔던 항문의 암 덩어리가 "쑥쑥쑥"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만져보니 아무 이상이 없었다. 밖에까지 퍼져 나왔던 암 덩어리는 깨끗해져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발을 만져 보았다. 발도 아무 이상이 없었으며 잘 보이지도 않았고 바늘로 쑤시는 듯 아팠던 눈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내가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 약을 먹어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아팠던 머리도 개운해졌고, 두근거리던 심장의 고동 소리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 물 마시기도 힘이 들었던 목이 아무렇지도 않다. 음식을 많이 먹어 보았다. 위장도 좋지 않았을 뿐더러 장까지도 유착되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아무렇지도 않다. '꿈이 아닐까?' 내 살을 힘 있게 꼬집어보고 또 꼬집어보았다.[51]

이로서 윤율리아는 결혼생활 이후 얻은 모든 고질병과 암까지도 치유되는 기적

50) http://www.najumary.or.kr/najumary/julia/julia059.htm
51) http://www.najumary.or.kr/najumary/julia/julia067.htm

을 경험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녀가 '고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육체적 고통을 하느님이 자신이 선택한 이를 사랑하기에 주시는 특별한 선물로 이해하게 되고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그녀가 자신의 고통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구속(救贖)의 도구로 사용하게 됨을 말한다. 또 다른 인식의 전환은 그녀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역전시킴으로서 그동안 자신에게 고통을 주었던 많은 사람들을 원망하는 대신 그들이 죄를 짓게 된 원인이 바로 자신에게 있음을 인식하게 되어 오히려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들의 폭력을 '감사히'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52]

이러한 윤율리아의 '거듭 남'은 우선 그녀를 육체적으로 변화시켰다고 하는데 즉 33세의 그녀가 19세의 소녀처럼 '탈바꿈' 되었다는 것이다.[53] 곧 이어 그녀는 병을 치유하는 기적을 보였다고 하며, 이와 동시에 그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고통과 대면하게 되는데 바로 일련의 예수의 현시를 경험하고 그의 고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행위를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신부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현시를 보게 되었다.
> 십자가에서 퍼져 나온 수많은 빛살이 나에게로 쏟아져 내려오면서 나의 눈과 입과 귀, 그리고 가슴에 수없이 꽂혔는데 마치 수천 수만 개의 바늘이 꽂히는 것처럼 너무나 아팠기에 그 순간 뒤로 쓰러졌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들이 잘못할 때마다 이렇듯 주님께서는 고통을 겪으시는군요. 제게 꽂힌 그 빛살의 숫자만큼 죄인들이 회개하게 해 주시어요. " (1982.3.26)[54]

> 첫 목요 '성시간' [55]에 ... 현시를 보게 되었다.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환

52) "나에게 못할 행동을 했던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봉헌하면서 '그 사람들은 나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여! 그 영혼들에게 자비를 내려 주시어요. 제가 아니었더라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저를 단련시키기 위한 도구들이었으니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어요.' 하면서 ... 오열을 터트렸다." (http://www.najumary.or.kr/najumary/julia/julia072.htm) 기독교의 중요 가르침이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여 참회하는 것이나 이러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인식의 전복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익숙한 담론 - 여성들이 결국 모든 잘못의 원인 - 을 재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윤율리아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남성들에게 사과와 용서를 빌고 그들의 매질을 예수의 편태고통에 동참한 것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일화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윤율리아, 같은 책, pp. 262-265.)

53) 같은 책, pp. 19f.

54) 같은 책, pp. 72f.

55) '聖時間'은 예수성심(聖心)에 대한 신심의 하나로 한 시간 동안 특별히 겟세마니(Gethsemane)에서의 예수의 고통을 묵상하는 것을 말하여 성체현시(聖體顯示), 예수 수

해지는 느낌이 들기에 눈을 떠보았더니 하얀 드레스에 빨간 망토를 걸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
예수님의 가슴이 열리더니 성심으로부터 핏덩어리가 쏟아져... (1982년 4월 첫 목요일)[56]

"오! 내 주님이시여! 당신이 쓰셨던 그 가시관을 저에게 씌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고통을 받음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여 주님 맘에 드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하며 청했더니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곧바로 가시관이 내 머리에 씌워지는 것이 아닌가?
가시관이 머리에 씌어지는 순간 많은 가시가 동시에 머리에 박혔고 어떤 가시들은 머리뼈를 뚫고 들어와 박혔는데 그것은 너무나 극심한 고통이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고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도 좋으냐?"
"네, 주님! 제가 고통받음으로 인하여 죄인들이 회개할 수만 있다면요. 그렇게 해 주시어요. 네?"
"그래, 그래, 더한 고통도 받을 수 있겠느냐?"
"네, 주님! 받고 말고요."
말이 채 끝나자마자 나는 곧바로 쓰러졌는데 순간 양손, 양발, 늑방의 오상 고통과 가시관 고통, 가슴이 터져 나갈 듯한 극심한 성심의 고통이 수반되었기에 나는 그 자리에서 몸부림치다 쓰러져 이리저리 뒹굴면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미 받으시고 영광 받으소서" 라는 말 밖에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1982년 4월 사순시기)[57]

윤율리아의 대속행위는 위와 같이 고통을 자발적으로 구하는 단계로 발전하며 결국 그녀가 죽음을 준비 할 만큼 극심한 고통을 가져오나 이를 통해 그녀는 자신이 특별히 신의 선택을 받은 인물 즉 구원자라는 강한 확신을 얻게 된다.

주님께서 한동안 나에게 세상 사람들의 영혼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 주셨고 성령쇄신 기도회에서는 주님의 가슴이 열리고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져 나가면서 처절하게 피를 흘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나는 이때부터 내가 고통 받음으로 인하여 한 영혼이라도 회개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주님께 위로가 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떠한 고통도 마다하지 않겠노라며 주님께 고통을 달라고 청했다.
주님께서는 나의 청을 들어 주시어 이때부터 고통을 받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고통은 더욱더 가중되었다. ... 나는 자주 자리에 눕게 되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

난에 대한 묵상, 장엄기도, 성가, 성체강복 등으로 이루어지며 (보통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 공동체에 의해서나 개인적으로 행해진다. (『가톨릭백과사전』)

56) 윤율리아, 같은 책, pp. 74f.

57) 같은 책, pp. 78f.

해서 나를 치료해 보려고 무진 애를 써 보았지만 도저히 안되었기에 나중에는 대학병원에서도 포기하고 ... 집으로 돌아온 나는 가족들을 모아 놓고 임종준비를 시켰다.
깊은 기도에 심취해 있을 때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마치 모든 사물이 일시에 정지되는 듯한 느낌이 들기에 '아, 이제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려나 보다' 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때 주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왔다.
자, 어서 일어나거라.
너는 이미 내 어머니와 나를 위한 증거자로 특별히 간택되었으니 너는 이제 구원된 초월자로서 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어느 샌가 나의 온몸은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어 있었다.
'오 나의 주님 나의 사랑이시여! 더러워진 제 영혼 육신을 당신께서 흘려주신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어 다시 살려내셨으니 부족하고 보잘 것 없는 이 죄녀 당신 뜻대로 사용하소서. (1985.3.25)[58]

위에서 보듯이 윤율리아가 80년대 중반까지 경험한 현시, 기적, 대속고통 등은 모두 예수와 관련된 것으로 그녀의 초기 활동은 예수성심운동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그녀는 예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체를 매우 중요시하고 신자들이 자신의 죄를 정화하지 않고 성체를 아무렇게나 받드는 것 - '모령성체'(冒領聖體) - 을 예수에 대한 모독으로 신랄하게 비판한다.[59] 그러나 1985년 7월 윤율리아가 모시는 "눈물 흘리는 성모상'의 기적이 알려지면서 순례객들이 전국에서 몰려들면서 그녀의 추종자들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현재의 모습 - (나주) '마리아의 구원방주' - 으로 정착되면서 그녀는 성모신심을 전면에 내세우며 성모로부터 받았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변화가 어떤 구체적인 배경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성모신심운동이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독자적인 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왜냐면 평신도의 예수 관련 사적 계시 발언은 제도권과의 정면충돌을 불가피하게 만드는데 반하여, 사적 계시가 마리아 발현이나 기적에 토대를 둔 대중 종교운동의 성격을 띤 마리아 신심운동과 결합된다면 제도권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유연한 대응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데레사의 상주 공동체가 이미 보여 주었듯이, 한국 천주교

58) 같은 책, pp. 248-252.

59) 같은 책, pp. 196f. "주님! 진정 당신은 이 지상에서 썩어 없어질 육체를 가진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시어 참으로 당신의 오묘하신 사랑과 그 깊은 경륜을 알게 하심으로써 모든 인간이 구원받도록 부르셨습니다. ... (나는 베로니카에게 말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성체 안에 당신의 몸과 피와 영혼과 천주성을 감추신 채 몸소 음식이 되면서까지 우리에게 오시었겠느냐. 성체는 바로 온몸을 다 내어놓으신 주님의 살과 피가 아니냐.'" (같은 책, p. 274.)

교회와 같이 성직자중심의 교도권을 강조하는 제도 안에서 평신도 중심의 성모신심 공동체의 구축과 유지는 쉽지 않은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한편 '마리아의 구원 방주'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 공동체가 성모신심을 앞세우며 추종자들을 모으고 이에 요구되는 인프라 - 성지인 '성모님 동산'과 이곳에 성모의 계시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은총의 샘터' - 를 구비하고 있으나 윤율리아 자신은 성모의 고통을 재현하는 대신 십자가길의 예수의 고통에 동참하며 지속적으로 자관고통(가시면류관 고통), 편태고통(채찍질 고통), 오상고통 등을 대중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윤율리아는 (황데레사의 경우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성모신심과 예수신심을 모두 표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서 성지인 '성모님 동산' 안에 예수와 관련된 '십자가 길', '갈바리아 언덕', '성혈 조배실'이 조성되었음을 설명할 수 있다.

Ⅲ. 몸 그리고 고통의 구원론적 의미

황데레사와 윤율리아는 비록 이들이 동일한 시기를 살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삶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많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즉 아버지의 부재, 지독한 가난과 심한 노동, 극심한 물리적 폭력에 노출, 교육기회의 박탈, 불행한 결혼생활, 자식(태아)의 죽음, (홀)어머니의 지극한 헌신 등이 그것이다. 이 두 여성이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낸 시기는 한국 사회에서 가부장적 성향이 여전히 굳건한 시기였으며 아버지의 부재와 이에 따른 집안의 몰락으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로 전락함으로서 이들은 차별과 물리적 폭력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주지하다시피 여성의 몸은 사회적 질서가 새겨지는 장으로, 이들 여성의 몸을 향하여 남성(들)의 강도 높은 폭력이 행하여졌으며, 그 중 윤율리아가 경험한 의료사고는 (남성주도 하의) 현대의학의 비인간성 즉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여 여성 고유의 영역인 임신과 출산까지 무감각하게 조절, 통제하고 있는 현대의학의 단면을 보여준다. 특히 이 여성들이 도피처로 택한 결혼은 오히려 이들을 가부장적 질서에 무조건적 순응하도록 강요하며 이들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이들 여성이 남성중심적 한국사회에 대하여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나 이들은 자신들의 존재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일생 동안 경험한 고통의 역사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런 과정에서 가톨릭 특유의 육체적 고통을 통한 대속 교리나 고통과 관련된 다양한 상징들은 이들에게 풍부한 종교적 자원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들 여성이 신비체험 이전에 겪은 고통이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부여된 그리하여 한 여성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신비체험 후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고통을 초월자가 자신들을 구속의 역사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준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고통을 초월자가 인류의 구속을 위해 나타낸 고통과 일치화하면서 자신이 경험한/경험하는 고통 전반에 대하여 구원론적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더 나아가 이들 초월자와의 지속적인 소통/합일을 위해 자발적으로 고통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들 여성은 고통을 능동적인 그리고 동시에 수동적인 주체로서 체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의 고통이 자기 가학적인가 아니면 피학적인가하는 질문도 이 둘의 경계성이 모호해짐으로서 그 의미를 잃는다고 할 수 있다.

황데레사와 윤율리아의 예수의 십자가고통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은 기독교 가르침인 '그리스도 닮음'(Imitatio Christi)을 몸을 통해 구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의 '고통'에 대한 갈구는 예수와 하나 되어 그의 구속의 역사에 참여하려는 갈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윤율리아가 '성모동산'의 '십자가 길'에서 정기적으로 예수의 편태고통과 자관고통으로 겪으면서 피를 흘리는 것은 그녀가 예수(의 고통)와 하나 됨을 보다 직접적이고 극적인 방법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예수와의 하나 됨은 그녀의 입속에서 성체가 예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성체기적으로 이어진다.[60] 물론 윤율리아에게 일어난다는 성체기적은 성체가 예수의 피와 살로 '실체변화'(transubstantiation)한다는 가톨릭 교리에 대한 문자적 이해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황데레사는 예수의 자관고통과 편태고통을 모두 받았지만 윤율리아와 같이 이 과정에서 피를 흘리지는 기적을 보이지는 않았다.[61] 왜 윤율리아에게만 피흘림의 '은총'이 주어졌는지 우리는 그 '신비'를 알 수 없다. 다만 그녀의 자전적 기술에서 보았듯이 그녀에게 있어 출혈은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함께 자주 일어나는 '익숙한' 현상이었기에 그녀가 예수의 십자가 수난으로 인한 피흘림에 보다 쉽게 동조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그녀의 피흘림은 자신이 예수의 구속의 역사에 동참

60) 이 밖에 '마리아의 방주'에서 일어난다는 성체기적으로는 미사 중 하늘(공중)로부터 떨어진 성체에 성혈이 흐르는 기적이 있다. (http://www.najumary.or.kr/najumary/miracle/050506_euc_miracle.htm)

61) 이런 맥락에서 황데레사는 윤율리아를 부러워하며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나는 40년 동안 십자가 고통과 자관 고통을 수없이 받아도 증표는 없었다.... 증표가 없어 반대 고통을 더 당하게 되어 나도 예수님께서 늑방에 창 찔린 고통과 상처까지도 그대로 주셨으면 하고 기도한 지 두 달 만에 이런 큰 교통사고로 죽음을 앞둔 고통을 받게 된 것이다." 황데레사, 같은 책, p. 540.

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들어내는 것으로 자신의 초자연적 능력과 종교적 권위의 중요한 '증표'라는 것도 참고해야할 것이다.[62] 이 밖에 윤율리아의 '마리아의 구원방주'에서 주목할 것은 - 어찌 보면 매우 인간적인 속성의 -'성스러운 유출물'에 높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주의 기적의 성모상은 여러 종류의 액체 - 눈물, 피(눈물), 향유, 젖 - 를 흘린다고 하는데 '젖'은 최근(2009)에 발표된 것으로 성모의 "사랑하는 자녀의 영육을 양육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하며, 또한 '성혈기적'으로 '성모님 동산'에 세워진 십자가의 예수(상)에 성혈이 정기적으로 흐른다고 한다.[63] 특이한 것은 이러한 성스러운 액체가 성모와 예수의 상에 제한되지 않고 나주 공동체 곳곳에 떨어진다는 것으로 '십자가길'에 예수의 피, 피땀, 진액 그리고 성모의 향유가 떨어지고,경당[64]과 율리아의 거처에도 성혈이 떨어졌다는 것이다.[65] 이러한 성스러운 유출물들은 이 공동체가 초월자에 의해 특별히 선택된 성스러운 곳이고 또 초월자가 항시 이곳에 임재하고 있음을 나

---

62) 예수의 피(성혈)는 가톨릭 전통에서 매우 중요한 구원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바이넘(Caroline W. Bynum)은 자신의 저술, *Wonderful Blood*,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7)에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과다출혈이 아닌 질식으로 사망했으며, 성서를 보더라도 예수의 피흘림에 대한 언급은 올리브산에서 예수가 피땀을 흘린 것(누가복음 22장 43-44절) 그리고 예수의 옆구리가 창에 찔린 후에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요한복음 19장 34절)에 불과하다고 적고 있다. 그녀에 의하면 히브리인들의 '계약' 과 '사원 희생' 개념에 기반하여 예수의 죽음과 피흘림이 최초로 결합되었다고 한다. (Bynum, 같은 책, p.1) 이러한 진술은 예수의 피를 둘러싼 다양한 신학적 담론과 숭배는 실제 사건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의 풍부한 상징성에 기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성혈의 다양한 의미는 황데레사와 윤율리아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피를 다양한 형상과 느낌으로 자신의 몸에 받고 있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인간의 구속(救贖)을 위한 신의 '희생', '헌신', '사랑' 그리고 인간의 죄를 씻겨내는 '정화'를 의미할 뿐 아니라, (황데레사와 윤율리아가 자신들의 현시에 나타난 예수의 찢어진 심장으로부터 흐르는 핏줄기를 바늘/화살로 표현하고 있듯이) 세상의 죄인들에 대한 예수의 깊은 '통탄'과 '아픔'을 의미하기도 하며, 예수의 십자가 피흘림은 예수의 '인성'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예수의 '연약함'(vulnerability)을 의미하기도 하며, (윤율리아가 예수를 '수혈자'라고 부르듯이) 성혈은 '생명'과 '양분'을 의미하기도 한다. (참조,「율리아 자매님 말씀요약」2010.5.16, http://blog.daum.net/nakhm/13425541) 이런 맥락에서 나주의 '성모의 구원방주'는 성혈이 담고 있는 풍부한 종교적 메시지를 매우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수난 성혈에 대한 과도한 의미 집중은 예수의 다른 구원의 사건인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의미를 약화시킴으로서 예수의 인성과 고통이 과하게 강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63) http://www.najumary.or.kr/mary/signs/2009-2~.htm; http://www.najumary.or.kr/najumary/miracle/preciousblood.htm

64) '경당'은 학교나 병원 등의 부속 성당 또는 특정 공동체의 편익을 위해 설립된 경배 장소를 말하며 '마리아의 방주'는 정식 교구성당으로 승인받지 못한 '경당'이다.

65) http://www.najumary.or.kr/najumary/mountain/cross_5.htm

타내는 하나의 증거로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66]

황데레사와 윤율리아의 자전적 기술은 이들이 자신들의 육체를 매개로 초월자의 고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 고통을 정기적으로 재현할 뿐 아니라 타인의 질병의 고통을 자신의 몸에 받아들임으로서 이들을 치유하는 기적을 보이는 등 육체 혹은 육체적 고통이 이들의 종교적 정체성에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황데레사의 삶, 즉 말년까지 이어지는 수많은 병고와의 끝없는 싸움 그리고 결국 사망에 이르름은 초월자(의 메시지)를 영접하기 위해 반복되는 육체적 정화(금식)와 초월자의 고통에 지속적으로 동참함으로서 야기되는 육체적 부담이 결국 육체의 와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윤율리아의 경우도 그녀의 자전적 기술을 보면 자발적으로 예수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 외에도 짧고 긴(30일) 금식을 자주 행하고, 1986년 (새 집으로 이사한) 이후에는 남편과의 성생활도 자발적으로 중단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67] 유럽 중세의 적지 않은 여성 신비주의자들이 지속적인 금욕 생활과 절식/단식으로 결국 죽음을 맞이한 사실을 상기할 때,[68] 이러한 과정은 기독교의 금욕주의적 전통과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몸에 대한 금욕적/가학적 훈육이 신체의 취약성(vulnerablity)을 극복하려는 시도이며 오히려 육체적 경험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그 육체성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다.[69] 이런 맥락에서 라이네케(Martha J. Reineke)는 중세 여성 신비주의자들이 상반되는 담론 - "flight from the body and flight to the the body" - 을 동시에 구현하고자 함으로서 스스로 모순성에 갇히게 되었다고 말한다. 즉 전자는 영육의 이원론에 기초하여 자발적으로 금욕(단식, 절식 등)을 행함으로서 자신의 육체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를 말하며, 후자는 예수(의 고통)와 합일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라이네케는 이들 여성 신비주의가들에게 있어 육체는 거부되는 동시에 육체의 경험은 강화되고 있다고 말한다.[70] 여기서 우리는

---

66) 성스러운 '유출물'이 지니고 있는 강한 상징적 효과에 대해서 Mary Douglas는 (의례적) 상징의 근원이 보다 사적이고 은밀(intimate)할수록 그 메시지는 풍부하며, 또한 상징이 인간 경험의 공통적 자원에서 도출되었을 때 그 수용은 보다 광범위하고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다. (Mary Douglas, *Purity and Danger*, Boston: Ark Paperbacks, 1985, p. 114.)

67) 같은 책, pp. 317f. p. 399.

68) Martha J. Reineke, "'This Is My Body': Reflections on Abjection, Anorexia, and Medieval Women Mystic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Vol. 58, No. 2, 1990, pp. 254ff.

69) Reineke, 같은 글, p. 259.

70) 같은 글, p. 255, 259.

여성의 종교체험에서 육체 혹은 육체적 고통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여성이 자신의 몸에 가하는 자발적 고통은 (여성의)몸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인식을 대변함으로서 기존의 질서에 순응하는 면을 보여주는 반면 몸을 통해 예수의 고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됨으로서 자신의 성스러움을 구현하고 이로서 기존의 남성중심적 질서에 도전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여성들의 육체를 통한 '비지성적' 종교체험과 이를 통한 신적 계시의 영접은 가부장적 교권과 (신학)지식권력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종교적 권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이로서 여성들은 자신의 종교적 역량을 제한함으로서 결국 기존의 남성중심적 종교질서에 통합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71] 따라서 여성들에게 몸 혹은 육체적 고통은 순응과 저항의 기제로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중세의 여성 신비주의자들과 본 논문에서 다룬 황데레사와 윤율리아는 시대적 간격은 물론이고 그 사회적, 종교적 배경에서 큰 차이를 보임으로서 전자와 후자를 동일선 상에서 논의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중세의 여성 신비주의자들이 수도원 생활을 하는 중상층 계급의 수녀들이 주를 이룬다면 황데레사와 윤율리아는 기층민 출신의 평신도로 자신들만의 은둔적/고립적 공간이나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고 오히려 생존을 위해 항상 고투할 수밖에 없었으며 또한 이들은 신비체험 후에도 자신들의 기존의 결혼생활이나 가족관계를 유지하고자 함으로서 이와 관련된 갈등 - 특히 자녀들을 잘 돌볼 수 없음에 대한 죄책감 - 을 피해갈 수 없었다. 무엇보다 이들 여성과 중세 여성 신비주의자들과의 가장 큰 차이는 전자가 사회적 약자로서 육체적 고통/폭력에 장기간 노출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황데레사와 윤율리아에게 있어 자신들의 고통스런 삶에 대한 재의미화 작업은 종교적 차원만이 아니라 실존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이들의 자전적 기술에서 신비체험 이전의 (세속적) 삶에 대한 기술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제 차이점들은 이 두 그룹의 여성들이 자신들의 몸, 육체적 고통, 사제권, 세상 등을 결코 동일한 시각이나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측하게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본 논문의 주제를 벗어나는 것이기에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

71) 참고, 이충범, 「빙엔의 힐데가르트의 싸움의 기술」, 『종교연구』 52, 2008, p. 350.

IV. 결론

본 논문에서 한국 가톨릭교회의 평신도 중심 마리아신심운동에서 중요한 역할 담당한 황데레사와 윤율리아의 자전적 기술을 바탕으로 이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들이 경험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고통과 이들이 경험한 신비체험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이 두 여성이 이전에 경험했던 부정적인 삶 즉 고통의 경험이 신비체험을 통해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여 궁극적으로 이들의 새로운 (종교적) 정체성 구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는가를 알아보았다. 혹자는 본고에서 핵심자료로 사용된 이들 여성의 자전적 기술이 이들 여성의 매우 '주관적인' 시각에서 쓰인 것으로 이를 토대로 이들 여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도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여성에 대한 제도권의 (부정적인 평가로 점철된) 보고서나 기사 등은 과연 이들 여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제공하고 있는지 되물을 수 밖에 없다. 본 논문의 핵심 주제인 '고통'은 주지하다시피 매우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이며 고통에 대한 재의미화 과정 또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내부자의 시각을 보여주는 자전적 기술을 의도적으로 선택함으로서 이들 여성들이 기술하고 있는 삶의 구체적 경험을 통해 이들의 종교적 성장과정을 추적하고자 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비록 이 두 여성이 한국 가톨릭교회에서 배척되고 그들의 종교적 메시지 또한 그 진정성이 전적으로 거부되고 있으나 필자는 이들 여성에게 어떠한 가치판단도 내릴 의도가 없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종교학자 그리고 여성학자로서 필자는 이 두 여성의 구체적인 삶의 경험과 이들의 신비체험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이들의 신비체험을 가톨릭 (신비주의) 전통의 맥락에서 살펴봄으로서 이들의 종교체험을 보다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여성들에게 몸과 고통이 중요한 구원론적 매개체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줄 뿐 아니라 동시에 그 한계점과 딜레마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72]

주제어: 여성의 자전적 기술, 여성의 신비경험, 몸, 고통, 폭력의 경험, 한국 가톨릭 여성, 가톨릭 신비주의, 중세 여성의 신비, 성혈.

---

72) 사회학적 시각에서 한국 제도종교의 가부장적 풍토에서 여성들이 어떤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신의 카리스마적 권위를 구축하고 있는가를 고찰한 연구로는 졸고 「젠더화된 카리스마: 한국의 여성 종교지도자를 중심으로」, (한국종교학회 2010년도 후반기 학술대회 발표문) 참조.

원고접수일: 2010년 11월 22일
심사완료일: 2010년 11월 30일
게재확정일: 2010년 12월 6일

*Abstract

Suffering and Mystical Experience of Korean Catholic Laywomen Focused on Autobiographical Writings of Theresa Hwang and Julia Youn

Woo, Hai Ran(Catholic University of Korea)

Women's religious Autobiographies serve as important materials to look into certain circumstances and processes in which women became to be religiously awakened and to realize their calling as religious leaders. Certainly, autobiographical writing is not merely record of what really happened but reconstructed narrative, in which the writer attempts to imbue his(her) whole life with a sense of coherence and in doing so, to explain or legitimate what he/she became to be at present. Especially for laywomen whose religious calling is easily ignored and oppressed by religious authorities, autobiographical writing remains as one of the few channels for them to let their voice be heard.

This paper centered on the autobiographical writings of two Korean Catholic laywomen, Theresa Hwang and Julia Youn who played an leading part in popularizing devotion to the Blessed Mother Mary in Korean Catholic Church, gathering followers around them as well as meeting with strong opposition from Korean Church. While the lives of these women have a lot in common, their sense of "suffering" is so intense, that it needs close scrutiny. Firstly, these women's experience of violence/violation on their body is traced. Secondly. it is described, how the suffering/trauma caused by their formal experiences turn into religious meaningful one after their mystical experience, and how physical suffering is actively used by them as an essential medium to communicate and to be unified with the divine beings (the Jesus and the Virgin Mary). Lastly, it is discussed what the body or physical suffering/ascetism means for women in a soteriological sense. To bring this theme in

the broader context, discussion on Medieval female mystics is taken into consideration.

Key Words: women's autobiographical writing, women's mystical experience, body, suffering, experience of violence, Korean Catholic Laywomen, Catholic mysticism, Medieval female mystics, sacred blood.